

초등학생 평가 '지필고사 → 과정 중심' 전환

전남교육청 '2019학년도 초등학생평가 개선 방안'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력 보장 교육도 강화

전남 초등학생 평가가 지필고사 중심의 획일적 방식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과정 중심으로 전환된다.

단원평가 등 학생 평가에서 객관식 정답 찾기 위주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읽기·쓰기·셈하기 등 초등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19학년도 초등

학생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교육청 주관의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올 1학기부터 단위학교 주관의 평가체제를 갖추고,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도 강화한다.

단순히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향상만을 목표로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태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미래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고려해 평가한다.

평가방식 전환과 더불어 초등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도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기초학력(3R's, 읽기·쓰기·셈하기) 및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 진단 평가를 강화한다. 학기초 출발점 진단을 하고,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업과 평가에서 일상 소재를 적극 활용한다.

학생들의 친숙한 일상생활에서 소재

를 끌어와 수업을 재구성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 상황이 반영된 평가를 실시한다.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력하는 정신을 배우도록 돕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 가짐을 갖도록 가르친다. 토론 문화를 장려하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결과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초등생 평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평가 이후에도 상담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우리철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홍성금) 인문학연구원(원장 강희숙) 우리철학연구소(소장 이철승)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상대학8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우리철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우리철학 100년의 현황과 과제-20세기 한국 사상계의 고민과 도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동서양 철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주요 관심사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김동민 교수의 사회로 ▲제1발표 모영환(조선대), '20세기 한국에서의 유가철학 연구 현황-시대의 영향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 노평 박정심(부산대) ▲제2발표 서영화(조선대), '20세기 한국에서의 서양철학 분류 기준의 특징과 과제-한국에서의 서양철학 연구 동향 논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노평 장주은(영산대) ▲제3발표 서재택(동국대), '20세기 한국에서의 불교철학 연구 동향-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현대

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노평 전준모(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정상봉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민정(카톨릭대), 임현규(강남대), 장영란(한국외대), 도승연(광운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선대 우리철학연구소에서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철학의 양상과 제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지난 몇 년 간 연구소에서는 '우리철학을 어떻게 해야 하고', '서양철학의 한국화는 어떻게 진행 되었으며', '근대전환기 한국철학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철승 우리철학연구소장은 "우리철학은 지난 20세기에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생겨난 시대의 문제의식들을 한국인의 의식과 정서를 통해 사상적으로 규명하려는 철학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취지를 공유하는 한, 동양의 전통철학이나 자생철학, 서양철학 또한 우리철학의 틀 안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송원초·대구 영신초 "우리는 달빛친구"

4회째 친구 맺기 행사 영신초 40명 광주 방문

광주송원초등학교(교장 신명순)와 대구 영신초등학교가 최근 1박 2일간 광주에서 달빛친구 맺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 두 학교의 달빛친구 맺기 행사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며 달빛친구는 대구의 옛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옛이름인 빛고을의 첫글자에서 따왔다.

두 학교는 2015년 자매결연을 맺고 '달빛친구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체험'을 이어 왔다. 대구 영신초 4학년 학생 40명은 지난 25-26일 광주송원초 학생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양림동 근대화 거리를 체험했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도 결연을 맺은 친구와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다. 2학기에는 광주 송원초 학생들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앞서 대구 영신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송원초를 방문해 설명회를 듣고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 '찾아가는 실험실' 운영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단장 박복희)은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 체험 지원과 진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매년 3대 1 전후의 높은 경쟁률 속에 여학생 비율, 지역적 거리 안내 등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관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에도 전남지역 비도시 지역 23개교와 도서 지역 7개교 등 총 30개교를 최종 선정해 연 3회씩 과학 분야(화학, 물리, 지구과학)와 공학 분야(기계, 컴퓨터,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7일부터 1차 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그램이 일반적 교육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사전·사후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흥미롭고, 만족도가 높은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은 이러한 콘텐츠 개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이공계 분야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해 사업단 홈페이지(wiset.mokpo.ac.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장 박복희 교수는 전남 지역의 소외지역에 대한 이공계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공과대학 여대생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우수한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 부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지역의 우수 여성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이공대, LINC+사업 계속지원대학 선정

2021년까지 50억원 지원

조선이공대가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5일 발표한 전문대

학 LINC+ 육성사업의 1단계 평가결과 2단계 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단계 평가 결과로, 조선이공대는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2단계 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LINC+사업은 2017년~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되는 대학지원 사업으로, 사

업 기본계획에 따라 2017~2018년 1단계 사업과 2019~2021년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1차 평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58개 전문대학(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3개교,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개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선이공대학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34개교에 최종 포함됐다.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은 "우리대학

LINC+ 사업단은 '미래사회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완성형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조혁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 휴먼화공 기술의 3분야의 PERFECT 인재를 양성해왔다"며 "해당 산업체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산업에 적합한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 모델을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지역 연계 모범적 평생학습 모델 만들자" 동강대, 광주 동구청과 업무협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과 연계한 모범적인 평생학습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광주동구청과 협력한다. 동강대는 최근 광주시 동구청 접견실에서 기문대 총장과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동강대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Ⅲ유형인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모범적인 평생학습 선진화 모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동구청과 손을 잡고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후진학선도형 활성화 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주소 | 순천시 중앙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